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KIA 후반기 관전 포인트…누가 먼저 대기록 달성할까

기록의 스포츠, 개인 기록 페이스에 따라 KIA의 후반기도 달라진다.

전반기 KIA의 아킬레스건은 타격이었다. 중심에서 시원하게 화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치고 나갈 동력이 부족했다. 그 아쉬움의 끝에는 이범호와 나지완이 있다. 부족했던 전반기였지만 팀에서 해줘야 할 선수들. 21일 시작된 후반기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기록에 도전한다. 이들의 기록 달성 속도에 따라 KIA 후반기 모습도 달라진다.

'만루홈런의 사나이' 이범호는 두 개의 만루포를 포함 15개의 한 방을 날리며 팀 내 홈런 1위로 전반기를 끝냈다. 불 같은 폭발력은 있었지만 타선을 끌고 가는 꾸준함이 없었다. 타율 0.236, 46타점. 득점권 타율은 0.258로 조금 높아지지만 이범호라는 이름과 명성에는 부족했다.

남은 시즌 이범호가 채우고 싶은 기록은 많다.

이범호, 홈런 13개…나지완 33타점·7개 홈런 남아

윤석민 24번째 기록 '-9'…양현종 21.1이닝 던져야

전반기까지 이범호는 237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통산 120번째 250홈런에 13개를 남겨두고 있다. 통산 27번째 1600경기에는 31경기가 부족하다. 5000타수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45타수를 채우면 30번째 5000타수 주인공이 된다. 25번째 2500루타 기록을 위해서는 시즌 마지막까지 불꽃을 태워야 한다. 전반기에 만든 115루타, 앞으로 175루타가 남았다.

나지완도 타점과 홈런 기록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2008시즌 KIA의 개막전 첫 신인 4번 타자로 화려하게 프로 생활을 시작한 나지완은 꾸준하게 팀의 중심 타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선수다. 하지만 올 시즌 전반기는 암흑기였다. 전반기를 0.204의 타율로 마무리했고, 홈런은 단 3개에 불과했다. 0.132까지 뚝 떨어진 득점권 타율 탓에 55경기에서 기록한 타점은 14점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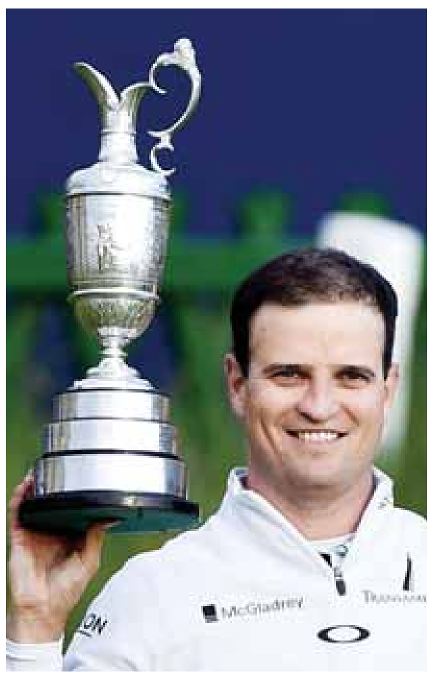
나지완 야구 인생의 최대 위기. 팀도 답답한 공격에 같이 발이 묶였다. 잊고 있던 '해결사 본능'을 깨워야 한다. 나지완은 앞으로 33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 500타점 고지를 밟게 된다.

무엇보다 '홈런타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 나지완은 프로 2년차인 2009년 23개의 홈런을 시작으로 지난 시즌까지 꼬박꼬박 두 자릿수 홈런을 채웠다. 남은 후반기 7개의 홈런을 추가하면 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록(역대 25번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홈런과 타점, KIA가 나지완에게 가장 바라는 기록이기도 하다.

KIA를 대표하는 두 투수 윤석민과 양현종은 '1000'을 향해 나아간다.

2005년 타이거즈맨이 된 윤석민은 매서운 강속구와 다양한 변화구로 그동안 991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24번째 1000탈삼진에 9개를 남겨두고 있다. 에이스 양현종은 1000이닝 투구에 다가가고 있다. 양현종은 올 시즌 18경기에서 112이닝을 소화하면서 전체 8위, 팀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21.1 이닝을 더 막으면 양현종의 1000이닝이 완성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잭 존슨 '디오픈' 우승

잭 존슨(미국)이 제144회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총상금 630만 파운드) 우승을 차지했다.

존슨은 20일(현지시각)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 올드코스(파72·729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로 6언더파 66타의 성적을 냈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존슨은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 마크 레시먼(호주)과 함께 연장전에 들어갔다.

1,2,17,18번 홀(이상 파4)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존슨은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언더파를 기록해 이븐파의 우스트히즌, 2오버파의 레시먼을 제치고 클라레 저그의 주인공이 됐다. 우승 상금은 115만 파운드(약 20억6000만원)다.

2007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존슨은 개인 통산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다.

올해 마스터스와 US오픈을 석권한 조던 스피스(미국)는 14언더파 274타로 연장전 합류에 1타가 모자랐다. 제이슨 데이(호주)와 함께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US오픈 우승 전인지

"올해 목표 5개 중 4개 이뤘네요"

"올해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5개 세웠는데 그중에 4개는 이뤘어요. 남은 하나가 뭔지는 이루고 난 뒤에 말씀드릴게요."

올해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웃으며 말했다. 전인지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KLPGA 투어 상금 랭킹 1위(5억5924만원)를 달리고 있는 전인지는 "이미 이룬 목표는 작년에 이뤘던 3승, 매치플레이 대회 우승, 작년에 우승한 대회 타이틀 방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대회 우승이었다"고 소개하며 "남은 하나는 하반기에 소식을 듣게 되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챔피언스필드 물놀이 세상

24~8월 14일 '핫 서머 페스티벌'

외야에 미니 수영장·물총 싸움 등

챔피언스필드 외야에 시원한 물놀이 세상이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가 오는 24일 롯데전을 시작으로 8월 14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12경기에서 '금호타이어 핫 서머 페스티벌(Hot summer festival)'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금호타이어의 후원으로 경기장 좌측 외야 샌드파크에 미니 수영장과 물 미끄럼틀이 설치된다.

미니 수영장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팬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가로 12m 세로 6m 규모다. 물 미끄럼틀은 높이 4m, 길이 8m 크기다.

물놀이장은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끝날 때까지 운영되며, '20명-20분-1회' 방식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물놀이장 주변에는 탈의실과 진행요원(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이 배치된다.

이밖에 페스티벌 기간 동안 물풍선 던지기와 물총 싸움 등 다양한 이벤트와 치어리더들의 특별 공연도 진행된다.

KIA 마케팅팀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가족 단위 팬들이 야구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금호타이어 핫 서머 페스티벌을 마련했다. 야구와 물놀이를 동시에 즐기면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대통령배 야구 결승 간다"

오늘 덕수고와 4강전

광주일고가 대통령배 결승전 티켓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광주일고가 22일 오후 3시 서울 목동구장에서 덕수고와 제49회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 준결승전을 치른다.

광주일고는 지난 20일 대전고와의 대회 8강전에서 대전고를 6-2로 꺾고 4강행을 확정지었다. 2016 신인 드래프트에서 KIA의 1차 지명을 받은 에이스 김현준이 선발로 등판해 8이닝 3피안타 5사사구 8탈삼진 2실점의 호투를 하며 8년 만의 대통령배 우승 도전에 힘을 보탰다. 광주일고는 지난 2007년 대회 MVP에 빛나는 에이스 정찬헌(LG)과 허경민(두산)·서건창(넥센) 등의 활약 속에 대통령배 우승팀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일고 김선섭 감독은 "에이스 김현준이 좋은 활약을 해줬고 타자들의 공격력도 좋다. 번트도 잘 대고 자신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실책도 많이 나오지 않았다. 올해 들어 투·타 밸런스가 가장 좋은 상태다. 예선전에서 보여준 대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결승 진출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유격수 출장'

'부상' 조디 머서 복귀때까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유격수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잡았다.

강정호는 21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커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방문 경기에 5번타자 유격수로 선발출전했다. 이제 강정호는 선발 출전이 익숙해진 내야수지만, 유격수로 선발출전한 것은 6월14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 이후 37일 만이다. 강정호는 이날 경기 전까지 유격수로 23경기를 뛰고 16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다. 3루수 출전 기록(49경기, 선발 출전 40경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당분간은 유격수가 '강정호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주전 유격수 조디 머서의 부상 때문이다.

MLB닷컴은 21일 "머서가 무릎 부상을 당했다. 6주 정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머서는 전날 밀워키 브루어스와 경기에서 2회말 수비 도중 상대 주자와 충돌해 무릎을 다쳤다. 검사 결과 '왼 다리 타박상과 무릎 인대 손상' 진단이 나왔다.

클린트 허들 감독은 머서를 교체하며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강정호를 유격수로 보냈다. 3루수로는 션 로드리게스가 나섰다.

피츠버그 지역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은 이 조합을 두고 "허들 감독이 로드리게스보다는 강정호가 더 유격수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라며 "강정호는 머서가 돌아올 때까지 유격수 자리를 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강정호는 유격수로 나온 이날 4타수 2안타 2득점 1볼넷으로 경기를 마쳤다.

강정호는 2회초 무사 1루에서 캔자스시티 선발인 오른손 투수 요다노 벤추라의 시속 97마일(156㎞)짜리 패스트볼을 공략해 좌전 안타를 쳐내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5회초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다시 97마일(156㎞)짜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익수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2루타를 쳐내 멀티 히트(1경기 2안타 이상)를 완성했다. 2경기 연속 멀티히트다. /연합뉴스

전훈 떠난 손연재

"세계선수권 메달 2개 이상 따겠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2개 이상 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연재는 21일 크로아티아 전지훈련을 위해 출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목표는 항상 작년보다 더 잘하고 발전하는 것,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계선수권 메달이 쉽진 않지만 지난해 세계선수권 후프에서 메달을 딴 만큼 더 나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손연재는 8월 6일께까지 크로아티아에서 여름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8월 불가리아와 러시아에서 열리는 두차례 월드컵에 출전해 기량을 점검한다. 9월 7~13일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